

16

토론문

1.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윤 호 필 (상주박물관)
2.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천 선 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3.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토론문
이 동 희(인제대학교)
4.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에 대한 토론문
조 진 선 (전남대학교)
5. 「중국고고학에서의 벼농사기원의 변화와 중국문명의 인식」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6.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윤 호 필 (상주박물관)

본 토론문은 국제학술대회 주제인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중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것으로 3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지며, 각각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문화(김규정)’,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이재언)’, 영산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이동곤)’이다. 따라서 토론은 기본적으로 각 주제별 발표문에 따라 질문을 드리지만, 일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3분의 발표자에게 공통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

발표문은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해 취락과 분묘에 대한 연구현황을 연구사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양상을 시기별로 검토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경문화에 대해서도 약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다. 따라서 발표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호서·호남지역에 분포하는 송국리식주거지는 내부구조가 타원형구덩이와 양단에 주혈을 갖춘 A형식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도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83%가 A형식이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이러한 이유에는 영산강유역에서 송국리식주거지가 가장 많이 조사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영산강유역에 A형식이 유독 많이 분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이 확인되는데, 이들 주거지의 선후관계는 일부 유적조사(광주 수문리유적)와 연구성과(유향미 2006)를 통해 원형에서 방형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발표자는 양자의 중복사례가 극히 드물어 영산강 유역 전체의 양상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형이 빠르고 원형이 늦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간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지역의 주거(취락) 양상을 발표한 이재언 선생님은 오히려 원형에서 방형으로 이행하는 것이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특징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분묘의 설명에서 석관과 묘광 사이에 작은 할석으로 뒷채운 것이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의 특징으로 파악하셨는데, 이러한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영산강유역 전체의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산강유역 내에서의 지역적 특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지석묘 매장주체부의 형태와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기에 비해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변화가 영산강 전체적인 현상인지 국지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농경은 유적조사사례는 없고 농경구나 출토곡물, 토기압흔, 지방산분석 등을 통해 농경의 흔적을 일부만 확인될 뿐 적극적인 조사나 연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경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도 제시하였지만, 경작지의 주요 입지인 충적지나 곡저지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조사사례는 없지만 취락과 분묘의 분포와 밀집도를 볼 때 영산강유역에서 대규모의 경작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에 대한 토론

발표문은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취락)'에 대해 연구사와 유적 분포양상을 정리하고 주거유적의 시기별 양상을 검토하여 주거의 편년과 특징을 파악한 것으로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표문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산강유역 주거유적의 현황을 보면, 조·전기는 영산강 중·상류(담양·광주·나주)를 비롯한 황룡강, 함평천에서 확인되며, 중·후기유적은 지류에 해당하는 지석천, 영암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의 수량도 전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지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산강의 상류지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의 분포와 밀집도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발표자의 검토 결과 중에서 지형적으로나 주거의 분포배치 형태에서나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지의 평면형태(원형과 방형) 변화에 대해서는 앞서 김규정 선생님의 토론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발표자께서도 함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는 방형 주거지에 대해 주목하여 주거지의 계기적인 변화와 함께 문화유입에 따른 공백 지역을 점유하면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전기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화유입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접변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전북 및 호남 동부권의 경우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서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이해하고, 영산강유역의 주거지군은

대부분 소형에 속하며 주거 배치의 불규칙성, 각 수계별 상위의 중형 및 대형주거군(광주 수문, 평동, 덕림동 올림)의 존재는 경쟁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유가 가능한 주변 환경을 통해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되며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배경에는 전기부터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산강유역의 주거문화는 분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야 하며,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요소들이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내 주거유적의 특징적인 분포양상과 각 지역별 특징적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자는 호남지역의 관점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중점, 거점취락의 양상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영산강유역에서는 거점취락을 상정하기에는 차별화된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인된 주거지의 수가 많고 전기부터 후기까지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쳐 유적이 확인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중기에는 주거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분포상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거점취락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취락간 상호 네트워크 형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권 선생님이 발표한 지식묘 검토결과에서도 지식묘는 일정 지역에 중심 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초대군집 또는 대군집 중심으로 주변에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집분포지는 지식묘 축조집단이 일정한 범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으로 영역권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거점취락에 대한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지역환경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산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에 대한 토론

발표문은 '영산강유역권의 지식묘'에 대해 최신의 연구성과와 많은 지식묘유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특징과 지역성을 검토한 것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묘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발표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산강유역에서 지식묘와 취락은 송국리문화 시기인 중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확산합니다. 발표자는 지식묘의 분포에서 영산강 중·하류지역인 나주·영암 전역에 주로 분포하고, 화순군을 제외한 상류로 갈수록 400여기 이하로 적어진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식묘의 전파와 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한 취락의 경우는 분포범위가 지식묘와 반대로 중·하류지역 보다는 상류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취락과 분묘의 관계로 볼 때 영산강에서의 분포양상은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탁자식지식묘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형식으로 남부지역에서는 확인되는 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영산강유역권에서는 60기 정도가 확인되며, 주로 서해안과

영산강하류지역에 분산되어 분포합니다. 이렇게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식묘는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규모와 형태, 배치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북부지역에서 확인되는 탁자식지석묘와 영산강유역권에서 확인된 탁자식지석묘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형지석묘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지석묘 형태 중 하나인데, 분포권을 보면 탁자식지석묘의 분포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형태나 규모의 변화양상도 탁자식지석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역에서는 탁자식지석묘와 주형지석묘가 상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대형 기반식지석묘 중 매장시설이 없는 것을 상징지석묘로 설정하여 검토하였는데, 용어 그대로 상징적 기능을 가진 지석묘라고 볼 때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고 나아가 그 상징성에 따른 기능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국제학술대회 주제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으로 호남지역 청동시대 문화를 새로운 자료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문화양상을 재검토하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3분의 발표자께서는 영산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가 만경강유역권이나 섬진강·탐진강유역권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세부 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영산강유역권에서 많은 취락과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발표자들께서는 유적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취락은 지리적으로 교통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유구 및 유물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의 취락과 분묘에서도 이러한 상호 관련된 요소나 유물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청동기시대 중기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주거지와 함께 분묘도 급격히 증가하며, 분묘에서는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도 축조되지만, 지석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분묘의 종류에서 지석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호남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은 지석묘뿐만 아니라 석관묘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산강유역에서 지석묘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발표자가 있으시면, 그 원인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는 조·전기(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중기(송국리문화, 송국리유형), 후기(점토대토기문화, 수석리유형)의 문화가 모두 나타나는 지역으로, 취락(주거지)과 분묘(지석묘)의 변천으로 볼 때 각 시기별 문화는 다음 시기로 넘어갈 때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이어지거나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각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

천 선 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이번 학술대회의 2부 만경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와 관련하는 ‘만경강 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이종철),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정다운),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묘제’(송아름)의 세 발표에 대한 토론이 토론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표인 ‘만경강 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는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후기까지 주거, 취락, 묘제를 아우르며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경강유역 청동기문화의 특징을 두루 살피고 있다. 나머지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성격과 특징’과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묘제’ 발표는 첫 번째 발표에서 다루어진 세부 주제 즉 취락, 묘제로 나누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두 발표 내용이 전자의 발표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각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풀어나가는 쟁점이 유사하기도 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확산과 분포확대, 전기 취락의 소규모 점적 취락, 중기 이후 거점취락의 형성 및 대중소 취락망(취락연계망) 형성, 그리고 중기 만경강유역 취락구조와 금강유역 송국리문화(취락 및 묘제)와의 친연성, 송국리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양상, 취락 제의의 연속성, 중기-후기 무덤 분포와 밀도 변화 및 지역별 무덤 형식과 구조, 부장상의 차이와 변화 등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따라서 세 발표를 아울러 의견이 상이하거나 발표자의 추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1. 만경강유역 전기 문화를 구성하는 실체에 대한 질의_이종철 선생님, 정다운 선생님

만경강유역 전기 문화의 형성 문제는 가락동유형에 무게를 두느냐, 가락동유형 및 역삼동·혼암리유형의 문화집변으로 볼 것이냐로 집약된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토착민(신석기시대인)¹⁾과의 관계에서 변형된 것으로 판단하고, 발표자는 후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이의 발생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자료 처리 방식의 차이, ②유형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이다. 먼저 ①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공렬토기의 존재, 주거 내부시설에서 초석이나 위석노가 없음을 근거로 든다. 즉 자료의 유무를 해석의 근간으로 삼아 다양한 유형의 공존으로 파

1) 이와 관련하여 이종철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토론자의 논문에서 이야기한 ‘토착민과의 관계’에서 토착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발표자의 견해로는 토론자가 말한 토착민은 역삼동유형 등의 집단 또는 그 영향으로 추정되므로 만경강유역 전기문화의 영향으로 온전한 가락동유형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토론자 논문 내용과 상이한바, 정정해두도록 한다. 토론자는 만경강유역 전기문화의 형성을 금강유역 가락동유형이 파급되어 변형된 형태로 파악하므로, 토착민이 역삼동유형 주민이어서는 그러한 논지가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논문 어디에서도 토착민을 역삼동유형 주민집단으로 이야기 한 바가 없다. 오히려 ‘토착 신석기시대인’으로 명시해 두었는바, 발표자의 오독으로 판단된다.

악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공렬토기가 문양이 있는 토기편 150여점 가운데, 5점²⁾이고 출토되는 단계가 대체로 3단계 및 4단계인 점, 공반하는 대다수는 가락동식토기인 점 등 만경강유역 내 공렬토기의 비율과 공반상 및 출토시기를 근거로 가락동유형의 변형을 파악한다. 공렬토기를 제외하면 발표자 주장의 근거는 주거 내부시설에만 있다. 위석노나 초석열이 돌대문토기문화 및 가락동유형과 상관성이 높은 것은 사실하지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②발표자는 혼암리유형 설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만경강유역의 전기문화 실체를 혼암리유형으로 규정한다. 발표내용상으로는 만경강유역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들어와 복합되었는지, 다른 곳에서 복합된 혼암리유형이 만경강유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읽을 수 없다. 토기는 가락동식인데 주거 내부시설이 역삼동유형이라는 문구와 역삼동유형 단독의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가까운 듯하다.

그러면 발표자가 말하는 혼암리유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기에 설정된 혼암리유형일까요 시간적 의미의 혼암리유형일까요, 혼암리식토기문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하나면, 발표자의 유형 의미에 따라 만경강유역 전기 문화를 이해하는 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형은 유물복합체, 동시성, 제작사용집단을 요건으로 규정되나 실제 인식하는 방식은 토기나 주거 구조 차이에 있다. 따라서 전통적 정의에 따른 혼암리유형은 전기 문화 대부분을 포함하게 되고 남한 전역이 동일한 전통을 가진 제작 집단으로 규정되게 된다. 다양한 지역문화를 혼암리식토기문화로 유연하게 엮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시성을 부여하고 동일한 전통을 가진 제작사용집단으로 규정하기에는 한반도 내 지역문화의 전개과정이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형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기존의 혼암리유형이라는 의미로 만경강유역을 바라본다면 지역문화의 실체를 추구하는 데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 토론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발표자가 혼암리유형을 시간적 의미로 사용한다면, 금강유역에서도 가락동유형을 중심으로 전기 후반에는 구순각목 등이 나타나고 초석 없는 주혈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자료를 시간적 의미의 혼암리유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발표자가 말하는 ‘혼암리유형 단계(시기)’와 토론자가 말하는 금강유역 가락동유형의 유입이라는 결과는 상반되지 않는다. 세 번째 혼암리식토기문화로 해석한다면,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혼암리식토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경강유역 전기문화가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어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유입되었다면 어디의 혼암리유형이 유입되었는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취락 구조와 기능_정다운 선생님

청동기시대 조·전기 취락 기능과 구성에 대해 동산동유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전기단계 소형주거의 기능을 일상용 주거시설로 보지 않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중대형 주거와 소형주거 간의 노지 형식 차이를 지적하며, 소형주거에서 토광식이나 무시설식 노만 확인되어 규모에 따라 노지 선택을 달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동산동유적만으로 볼 때도 중대형주

2) 용기리 I-2호(1점, 이사구공, 4단계), 장동II I-9호(1점, 이사구공, 3단계), 동산동 1-2호(1점, 구공, 1단계), 구암리 4-1호(2점, 구공, 4단계)의 5점이다.

거에서 무시설식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거규모와 노지형태의 상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며, 아울러 주거 규모와 노지 형태의 상관성이 소형 주거의 기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한다.

3. 중기 주거유적의 형태와 관련한 자료 확인_정다운 선생님

중기 주거유적을 I 취락지, II 취락지, III 취락지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부연설명 부탁 드린다. 그리고 각 취락지의 원형 및 방형의 비율에서 기존 연구와 많은 차이가 확인된다. 가령 I 취락지에서 원형 54기, 방형 36기라고 설명하면서 원형이 우세한 점은 만경강 전체 양상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경강유역에서 원형은 방형에 비해 3배정도 많은데, 위 수치로는 원형보다 방형의 비중이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과연 이러한 수치를 만경강유역의 일반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II 취락지에서 원형 내주공식 45기, 방형 내주공식 22기라고 하여 방형주거가 많은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의 이전 집계로 보면 II 취락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원형은 149기, 방형은 33기로 확인한 차이가 나고 오히려 원형의 비율이 높고, 이종철 선생님 발표내용에서도 II 취락지에 해당하는 S3, S2구역에서 원형 내주공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발표자의 위 수치가 어떻게 도출된 것이며, II 취락지 전체에서 과연 방형이 많다는 결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종철 선생님에게도 해당하는 질의로 위 결과대로라면 만경강유역에서 전체적으로 원형이 많은 것은 분명하나 지역별 차이가 드러난다. 만경강유역의 전체 틀 가운데 취락군 별로 원형과 방형의 비율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린다.

4. 전주 척동유적(II-1호)의 시간성_이종철 선생님, 정다운 선생님

척동유적 II-1호 송국리형주거 내에서 부뚜막이 확인되는 것과 관련하여, 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발표자는 송국리문화 단계에 부뚜막이 출현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후기의 취락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송국리형주거가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며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척동의 사례를 통해 송국리형주거가 하한이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해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만경강유역 직립구연호 옹관묘의 시기_송아름 선생님

직립구연호 옹관묘에 대하여 옹관의 기형을 근거로 전기로 편년하기도 하고, 주변에 송국리유형 취락이 전개되고 있어 중기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이종철 선생님은 후자에, 정다운 선생님은 2015년 석사논문에서는 전자에, 이후에는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으며, 송아름 선생님은 별다른 언급 없이 후자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 의견을 부탁드린다.

6. 주거와 무덤 분포양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_송아름 선생님

중기 주거와 무덤 간 비율에서 만경강 북부는 무덤이, 남부는 주거의 밀도가 높다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계된 무덤에서 지석묘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석묘를 감안하면,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전북 지역에서 모두 무덤 밀도가 높아진다. 지석묘를 포함한 양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다음으로 중기 주거와 무덤 간 비율에서 익산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1:1분포를 보이고 다만 주거유적이 무덤유적처럼 익산 북부 및 중부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 차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군산, 익산, 전주 지역의 분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군산지역은 1유적(축산리)에서의 무덤 밀집도가 높은 양상, 익산지역은 대형취락을 형성하는 영등-부송지구에서는 오히려 무덤의 출토예가 없고 중형취락 분포지에서만 무덤 밀도가 높으며, 전주지역은 비율 차이는 있지만 대형취락 등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무덤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 결과는 익산지역에 한하여 볼 때, 만경강유역 취락분석 양상과 차이가 분명하다. 이처럼 만경강유역 내 무덤 밀도 차이 및 취락과 무덤 간의 분포 밀도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7. 주거와 무덤의 공간 분리 여부_송아름 선생님

주거와 무덤의 공간이 점차 분리되어 가는 양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과 시점 및 양상을 확인하는 실질적 문제에 있어,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발표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한된 발굴범위로 인해 동일한 유적인데 다른 유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주거와 무덤이 함께 있더라도 주거수가 극히 적은 경우, 그 유적의 주거를 기능점토 없이 일상생활용 주거라고 보고 혼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표자가 예로 든 익산 모현동2가 섬다리지구, 전주 여의동은 무덤과 주거가 중복되는데, 동일한 입지에 주거지와 무덤이 시차를 두고 축조되었다면 과연 이 유적을 무덤과 주거의 입지 혼재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무덤과 주거의 공간 분리 여부도 중요하지만, 당시 지역 집단들이 매장구역 구성과 관리를 개별집단별로 해온 것인지 아니면 여러 집단의 공동 관리인지 등의 관계성이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8. 만경강유역 지역별 무덤 구조 차이_이종철 선생님, 송아름 선생님

지석묘를 비롯하여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 소지역별 비율차이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만경강유역이 송국리형묘제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지역집단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 무덤 조성이 달라진다고 두리뭉실하게 해석한 바 있다. 이종철 선생님도 토착집단의 선택적 결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송아름 선생님 발표에서는 무덤 형식 외에도 석관묘를 짜는 방법, 시상대 설치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송국리묘제라는 큰 틀 속에서 나타나는 만경강유역 무덤 형식과 구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섬진강·탐진강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 토론문

이 동 희 (인제대학교)

1. 공통 질문(황재훈, 김진환)

1) 송국리형 주거지의 하한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시기구분에 있어 전기, 중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후기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다. 이는 송국리형 주거지를 모두 중기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순천 연향동유적의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사례가 주목된다. 따라서 송국리형주거지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발표자들이 중기 후엽으로 파악한 토기나 송국리형 주거지는 사실상 기원전 3세기 이후의 초기철기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섬진강유역의 경우, 점토대토기가 희소하기에 후기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섬진강유역으로의 점토대토기의 확산이 제한적이었다면 다수의 토기는 종래 무문토기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송국리형 주거지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면 같은 맥락에서 지식묘도 존속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섬진강유역에서 가장 늦은 단계의 위석식 매장주체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기원전 3-1세기대에 섬진강유역에서 호남서부지역과 같은 적석목관묘나 토광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표 1〉 호남지역 송국리형 문화의 하한 관련 자료

유적명	유구	보고자 편년	편년의 근거	편년의 문제점
전주 송촌동2가	송국리형주거지 13기	청동기 시대	방사성탄소연대(기원 전 8-5세기)	두형토기출토, 퇴화형의 송국리형 주거지
고창 산정리	송국리형주거지8기, 수혈 30기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무문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의 동반
고창 율계리	송국리형주거지5기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주거지	원형점토대토기+무문토기의 동반 초기철기시대 수혈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물이 거의 차이가 없음
	수혈 4기	초기철기 시대	점토대토기출토	

유적명	유구	보고자 편년	편년의 근거	편년의 문제점
함평 소명	송국리형주거지 8기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주거지	3호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개와 함께 석축,석착,석도,유구석부 동반
광주 수문	송국리형주거지 31기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무문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5호) 퇴화형의 송국리형 주거지
나주 운곡동	송국리형주거지 75기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기원 전 7-5세기)	I -11호 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뚜껑 출토 다-1호 지석묘에서 세형동검,주조철착,석축 공반
장흥 갈두	송국리형주거지,지석묘 다수 동반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기원 전 8-7세기)	3기주거지에서 변형 원형점토대토기출토: 기원전2-1세기(임설희 2010) 점토대토기+무문토기 장흥,강진 지석묘의 하한연대는 기원전후(조진선 2008)
임실 망월촌	송국리형 주거지 5기	청동기 시대	방사성탄소연대(기원 전 7-3세기)	주거지에서 흑도 및 뚜껑 출토 퇴화형 송국리형 주거지

〈표 2〉 호남지역 늦은 단계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

유적명	늦은 단계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
전주 송촌동2가	타원형 구덩이와 주공이 최소(13기 중 6기만 작업공 확인), 타원형 구덩이가 없는 주거지는 소형인 경우가 많다.
고창 산정리	주거지가 소형이고, 공반된 수혈유구 출토유물은 주거지 출토유물과 동일 30기의 수혈유구 중 7기에서 무문토기와 함께 삼각형점토대토기 출토
고창 올계리	송국리형 주거지와 타원형 수혈은 소형. 수혈과 송국리형주거지는 인접하면서 중복되지 않아 동시대일 것
함평 소명	송국리형 주거지가 소형이 다수이고 비정형적. 즉, 찌그러진 타원형구덩이가 많고 주공이 없거나 타원형구덩이가 중심이 아닌 한쪽에 치우쳐 있음
광주 수문	주공이 없는 타원형주거지가 주거지 한쪽에 치우쳐 위치(24,28호) 타원형구덩이의 축조,변형(26호), 타원형구덩이와 주공이 미확인(29호)
나주 운곡동	퇴화형의 소형 송국리형 주거지 다수. 타원형 구덩이가 주거지 한쪽에 치우친 경우, 타원형구덩이가 소형이거나 타원형 구덩이 주변에 주공이 없는 경우, 타원형구덩이가 없는 경우
임실 망월촌	3호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 외부로 상당한 거리(1m)를 두고 주공이 확인되고, 5호 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는 없이 주공만 확인

상기한 바와 같이, 늦은 단계의 송국리형의 주거지의 특징은 전형적인 사례에 비해 정형성이 떨어지는데,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늦은 시기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은 타원형구덩이와 주공이 퇴화되어 보이지 않거나 전형적인

모습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타원형 구덩이가 없는 주거지는 규모상 소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늦은 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어 어느 정도 구분되는 사례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착안한다면, 무문토기와 삼각구연점토대토기를 포함한 경질무문토기를 늦게까지 사용한 송국리형주거지의 하한을 내려볼 수 있다.

이렇듯 비정형적이고 퇴화된 송국리형주거지의 공반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적지 않게 출토되어 그 하한을 기원전후한 시기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기원후 1-2세기까지 내려볼 수도 있다.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하한을 2세기까지로 보는 견해(이창희 2013)가 참고된다.

2) 송국리형 문화(후기)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

호남지방에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지만 관련 주거 유적의 조사는 희소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실제 그러한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면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파악한다.

그런데,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기원전후시기의 웅관묘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송국리형 외반구연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은 점토대토기뿐만 아니라 종래 무문토기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기원전 4-3세기에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호남지역(특히, 전남지역)은 기원전후시기까지 장기간의 과도기를 거쳤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종래 초기철기문화를 점토대토기문화(한국식동검문화기)의 존재로 일원화한 기존 편견이 오히려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초기의 공백기를 초래한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재차 송국리형 문화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 점토대토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취락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초기철기시대 취락유적은 찾기 어렵다.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초기에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양상은 기층사회의 분묘인 웅관묘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기 합구식 웅관묘는 광주 신창동 53기, 광주 운남동 2기, 무안 민평 1기, 함평 장년리 3기, 익산 어양동 1기 등이 조사되었는데, 합구식에 사용된 웅관은 대부분 송국리형 토기와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결합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호남(서부)권은 기원전 1세기경에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무문토기(송국리형 외반구연토기) 공반상을 보면,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었더라도 적어도 기층사회에서는 기원전 1세기까지 무문토기문화가 지속된 것이다.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하한을 조금 더 내려보면 기원후 1세기까지 될 수도 있다.

문화적 단절로 보지 않는다면 보성강유역에 이르는 시기의 점토대토기는 없고 종말기의 삼각구연점

토대토기만 있다. 보성 석평유적이거나 남원 세전리유적이 이를 대변한다. 즉, 송국리형 다음 단계에 늦은 단계 점토대토기만 보이는 것은 송국리형 주거문화와 늦은 단계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는 상호 계기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섬진강유역권은 점토대토기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송국리형 후기 문화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는 논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지식묘가 집중된 전남지역 지식묘가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철기시대에도 지속되듯이 송국리형 주거지가 집중된 호남지역의 경우, 송국리형 주거지를 일괄적으로 청동기시대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단계 구분하여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선사시대의 방사성탄소연대, 원사·역사시대의 방사성탄소연대

송국리형 주거지의 하한은 대개 방사성탄소연대에 근거하여 기원전 4-3세기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원전 3세기 이후는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 개념이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 설정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원형·삼각형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가 기원전 8-5세기까지 올라가고 있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의 신뢰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점토대토기(세형동검) 출토 유적에 대한 AMS 측정사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절대연대는 기원전 7-5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정연대는 기원전 9-5세기에 이른다. 방사성탄소연대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세형동검문화는 기년명문이나 漢鏡과 같은 절대연대가 확실한 유물들이 있고 이 유물들로 보아 기원전후경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에서 이러한 연대를 보이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형동검문화기의 방사성탄소연대는 실연대보다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세형동검문화의 상한연대를 기원전 5세기 이전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세형동검문화의 한반도 유입시기는 역사적인 맥락과 한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의 전개과정을 고려해서 기원전 300년경으로 볼 수 있다(조진선 2005).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면, 방사성탄소연대는 상한연대로 보아야 하고 조금 더 내려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점토대토기 출토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광주 수문유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호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무문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5호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보정연대가 기원전 820년 혹은 600년으로 나왔다. 5호주거지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심없이 이 편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삼각구연점토대토기를 감안하면 송국리형주거지의 편년이 전반적으로 너무 상향되어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유적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를 그대로 채택한다면 기존에 기원후 3-5세기대로 편년된 주거지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편년과는 큰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유물의 형식학적 순서배열도 흐트러 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최성락·강귀형 2019).

요컨대, 기년명이나 교차편년할 자료가 없는 先史時代에는 방사성탄소연대가 아무런 제약없이 그대로 인용되지만 원사·역사시대의 방사성탄소연대치는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기년명문이나 漢鏡과 같은 절대연대가 확실한 유물들과의 교차편년을 통해 신중한 편년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송국리형주거지는 방사성탄소연대로 측정되어 연대가 상향되고, 원삼국시대 이후의 유적 연대는 기년명에 의해 편년되다 보니 그 중간에 위치한 초기철기시대의 공백기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삼진강·탐진강유역권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황재훈)

1) 지석묘와 석관묘가 동일 지점에서 공존하는 사례는 임실 운정리유적이다. 즉, 지석묘 5기와 석관묘 4기가 분포하는데 지석묘는 남북 2열, 석관묘는 동서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지석묘와 석관묘는 묘제만 다를 뿐만 아니라 장축방향이 다른데 성별이나 계층의 차이로 볼 수 있는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남성은 주로 지석묘에 매장되고 여성은 토광묘에 매장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된다.

2) 화순 북교리 송국리형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는 2950 ± 120 이고, 보성 옥평리 장방형 주거지의 연대는 2770 ± 50 이다. 그런데 발표자는 외반구연호가 출토된 전자를 중기로 보고, 이중구연단사선 공열문토기가 출토된 후자를 전기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주거형태·토기조합상과 절대연대가 부합하지 않는 사례이다. 이는 보성강유역에서 송국리형 주거지의 상한을 올려야 하는 문제와 전기문화의 보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삼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김진환)

1) 삼진강유역권의 공열토기와 심발형토기의 전통이 경남서부권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경남서부권(남강유역권)과 전남동부권(삼진강유역권)은 긴밀히 연결된다. 그런데, 삼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의 주거유적은 인접한 남강유역권에 비해 매우 희소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삼진강유역권이 문화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신석기문화가 오래 지속되었고 신문화의 유입이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4. 삼진강·탐진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강동석)

1) 발표자는 삼진강·탐진강유역의 지석묘군에 대해 1-12기, 13-35기, 36-66기에 해당하는 군집을 각기 대,중,소로 구분하였다. 2만기에 달하는 전남지역은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데, 2천기 정도에 불과한 경남지역의 경우, 15-20기 정도면 대군집에 속한다.

면적에서 대차없는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에서 지식묘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2) 발표자는 “지식묘 피장자는 주거군을 이루고 있는 집단의 리더이며, 강력한 출계집단의 유력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자도 이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단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남강유역을 보면,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520기이고 묘는 180여기다. 1기의 주거지를 한 世帶로 보면 해당지역에는 대략 2500명 정도의 인구가 추산된다. 무덤의 숫자는 예상 인구의 1/14정도이므로 묘를 당시 일반 구성원의 무덤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김광명 2004).

이러한 통계치를 고려하면, 남성이 많은 지식묘의 피장자는 농경공동체사회에서 가부장적 세대공동체의 長일 가능성(이동희 2002)이 높다.

동시대에 5명의 피장자가 있더라도 그 중 석검 등의 위세품을 부장하는 피장자는 여러 세대 공동체에서도 지도자격으로 1개 취락(친족집단)의 우두머리(大人, 村長) 정도로 파악된다. 大人, 村長은 혈연적 지위에 의한 제한적·비공식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인(제사장)으로서의 권위는 오랜 씨족사회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가 거론한 ‘주거군’과 ‘출계집단’에 대한 부연설명을 바란다.

3) 발표자는 “출계집단의 리더의 죽음을 매개로 한 영속적 권위의 유지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역사적 연속성을 따르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선형 또는 열상의 지식묘 배치 구조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지식묘가 조성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숄바섬의 지식묘에 대한 인류학적 자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이동희 2011). 즉, 한국이나 숄바섬에서 공히 열을 짓는 지식묘군들이 확인되며, 일정한 방향으로 형식변화가 관찰되며 그것은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숄바섬의 대표적인 중핵마을인 린디지식묘군은 3열을 보이는데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축조되고 있다. 중심열이 길며, 나머지 양쪽 가장자리 열은 짧은 편이다. 중심열은 가장 웅장하면서 씨족의 종손 계열이 무덤을 축조하고, 나머지 열은 씨족의 방계와 관련된다.

4) 발표자는 “우산리 내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열상 구조의 변화이다. 기존에 열상구조를 보다가 무질서한 군집 패턴으로의 전환이다. 이와 같은 사회 질서의 대전환을 피하였던 전략적 행동의 원천은 외래품의 차별적 소유와 송국리문화와 같은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었을 것이다. 특히, 송국리문화에서 비롯된 생업경제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잉여 확보는 유력 집단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세력을 추종하고 사회변화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보성강유역의 지식묘 축조사회는 송국리문화와 관련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산리 내우 유적에서 열상을 보이는 다수의 지식묘는 송국리문화와 관련지어야 한다. 다른 지식묘군에서도 그러하지만, 지식묘군 말기에 열상구조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계기는

송국리문화 말기 단계와 관련짓는다면 세형동검문화(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산리 내우유적의 무질서한 군집에서 주 매장주체부는 늦은 단계의 석관형이거나 위석형이며, 유물도 늦은 단계에 해당하거나 유물이 보이지 않는 말기 단계이다. 섬진강유역에서는 호남서부권과 달리 기원전의 적석목관묘나 토광묘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문화적 보수성을 보이는 섬진강유역에서 지식묘문화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광명 2004, 「경북지역의 고인돌과 보존현황」, 『아시아권에서의 문화유산(고인돌) 보존과 활용』, 제1회 세계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움,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 이동희, 2002, 「전남지방 지식묘 사회와 발전단계」, 『호남고고학보』 15
- 이동희, 2011, 「인도네시아 숨바섬과 한국 지식묘 사회의 비교 연구」, 『호남고고학보』 38
- 이동희, 2015, 「호남지방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공백기 시론」, 『호남지방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문화』, 2015년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 이창희, 2013, 「철기시대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조진선, 2005, 『세형동검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 조진선, 2020,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 최성락·강귀형, 2019,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토기편년’에 대한 반론」, 『호남고고학보』 6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에 대한 토론문

조 진 선 (전남대학교)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문화>에 대하여 오늘 한수영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정수옥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초기철기시대 유적들은 이 시대의 특징적인 무덤들이 발굴 조사되어 많은 주목을 받아 왔지만 그밖에 생활유적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 자료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말 많은 자료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수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 단웅직치, 단웅사치뿐 아니라 이웅횡치와 이웅직치 등 다양한 형태의 옹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I~II기에는 옹관묘가 확인되지 않다가 III기부터 소량이지만 횡치 합구식 옹관묘가 조성되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형식의 옹관들이 초기철기시대 III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① 초기철기시대 I~II기에도 옹관묘가 조영되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았을 가능성, ② 전주 동산동 유적의 옹관묘 중에서 일부가 초기철기시대 III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 ③ 반대로 초기철기시대 III기 횡치옹관묘의 영향을 받아 전주 동산동 유적에 횡치옹관묘가 조영되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동산동 유적의 연대가 초기철기시대 III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영 선생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전주 대정IV 유적에서는 1~2기의 장축노가 조영된 주거지들이 발굴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기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통으로 이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 전기적인 양상이 청동기시대 중기에 어떠한 형태로 이어져서 초기철기시대에 복고되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호남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초기철기문화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그 뒤를 잇는 문화적 양상이 모호합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양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발굴 조사의 우연한 편재로 인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초기철기시대적 문화 양상의 끝부분을 조금 더 내리던지, 아니면 원삼국시대적 문화 양상의 시작부분을 조금 더 올리던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수영 선생님께서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유적의 부재는 제철유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어서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4. I 기에는 송국리형주거지와 수석리식주거지가 있으며, II기에는 수석리식주거지가 사라지고 송국리식 토기의 비율도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III기에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사라지고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등장하며, IV기에는 김제 반월리의 말각방형계 주거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 변화양상에서 I 기의 수석리식주거지와 III기 이후의 방형주거지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5. 질문이 아니지만 전주 중동유적에서 출토된 평기와 7점과 야요이계 토기들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영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김진영 선생님께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부착된 토기군을 신창동식토기로, 홀구연으로 변환된 토기군으로 경질무문토기로 칭해졌던 토기를 군곡리식토기로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토기는 무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신창동식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 군곡리식토기(경질무문토기)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선후관계가 인정되고 연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맥락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신창동식토기나 군곡리식토기라는 명칭은 조금 낮설어 보입니다. 기존 명칭들은 토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부여한 것이지만 이러한 안은 토기의 특성과 유적의 특성이 조합되어 약간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신창동 유적이나 군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기종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절대연대를 언급하면서 방사성탄소연대는 상당한 간격을 가지고 있고 상대연대와 일치하지 않는 듯하지만 보정연대의 상한과 하한도 50~300년 정도 시간적 간격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연대와 일치하는 범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기년(紀年)적 편년과 방사성탄소연대에 기반한 편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합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방사성탄소연대 불신론자로 비취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양자를 맞추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3. 초기철기시대는 해안을 이용한 신통로가 열리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김진영 선생님께서는 유적을 거점형, 현지화형, 단일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중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는 거점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대곡리 인근에서 더 이상의 유적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인상적으로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다면 단일형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점형과 단일형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선생님께서는 여수 웅천동 토광묘를 III기로 구분해서 보성 우산리 현촌 유적과 동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세형동검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남해안지역에서 좀 더 이른 시기의 유물들은 일찍부터 출토되고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수습된 성문의 조문경이 대표적이며, 장흥 학송리 동과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해안지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세형동검문화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옥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전주·완주 일대의 세형동검문화는 발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만경강유역에서는 비파형 동검문화 관련 청동기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은데, 세형동검문화에 들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놀라운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남한지역 전체적으로 보아도 성립기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경강유역 세형동검문화의 기원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산 선제리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충남해안지역의 세형동검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양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산 선제리유적이 발굴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경강유역에서 세형동검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만경강유역에서 세형동검문화 관련 무덤유적들은 상당히 많이 조사되었지만 그에 상응할 만큼 생활유적은 조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송국리형주거지가 그 역할을 상당히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수영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송국리형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조영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자료가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만경강유역에서 세형동검문화는 기원전 1세기경이 되면 급격하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최근 관련 유적들이 조금씩 확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와 분석 결과들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어 공백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메꿔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현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만약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국고고학에서의 벼농사기원의 변화와 중국문명의 인식」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정운비(鄭云飛) 선생의 중국고고학에서의 지금까지의 발굴성과와 학제간융합연구(學制間融合研究)를 통하여 황하유역(黃河流域)과 마찬가지로 양자강유역도 도작(稻作)의 기원지 중의 하나이며 중국 문명의 주요 토대가 되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중국에서의 벼농사에 관한 발굴사와 연구사를 잘 정리해주시고 최신 발굴자료도 소개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식물고고학연구에서는 도작의 중국기원설을 강조하는 국가중심적 연구보다는 환경생태적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하여 고식물민족지고고학(古植物民族誌考古學 palaeo-ethno-botany)과 고식물(古植物)고인지고고학(古認知考古學 palaeo-cognitive symbolic botanic archaeology)도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저고성유적(良渚古城遺址) 등에서 보이는 신석기시대 만기(新石器時代 晩期)의 양저문화(良渚文化)단계의 벼농사 양상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신석기시대 초기 유적지 19개의 분포양상을 고려할 때 절강성(浙江省) 중부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11,000-8,500년 전 벼농사(稻作)가 시작되었다고 하신 것을 중심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양자강 중하류유역도 야생벼가 자라는 지역이었는지요? 대체로 인도 아삼(Asam)지역과 중국 운남성지역에 야생벼가 자랐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중국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야생벼가 당시 자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작(稻作)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토가 방대한 중국의 경우 다양한 환경조건이 펼쳐져 있어서 도작(稻作)의 기원을 논의할 때 환경이 다른 권역을 나누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야생벼가 자라지 않았다면 양자강 중하류지역은 운남성과 달리 야생벼로부터 벼농사가 시작된 발생지라고 하기보다는 벼 재배문화가 전파되어 채택된 2차적 벼농사 전파지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벼농사가 막 시작되기 직전의 생업유형은 어떻게했는지요? 구석기시대 말엽 잔영기(舊石器時代末葉殘影期)에서 신석기시대 초창기(新石器時代草創期) 혹은 초기(早期) 벼농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의 생업유형 변화양상에 대한 중국고고학계의

현재 주된 견해는 무엇이고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요? 단순히 벼농사의 기원을 약 10,000년 이전으로 연대를 상향시키는 것보다 생업양상의 지역별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어떻게 벼농사를 채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다양한 먹거리를 넓게 확장하여 먹는 ‘광범위 자원 식량활용경제(broad-spectrum economy)’ 현상은 확인되고 있는지요? 벼농사를 시작하기 직전 단계의 인구증가 등 인구압력을 암시하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요?

다섯째, 양자강 중하류유역에서 신석기시대 초기 육도(陸稻)도 확인된 바 있는지요? 육도(陸稻)와 수도(水稻)의 생업상의 비중이 어떠하였는지 확인된 식물유체와 그에 관한 연구가 있는지요? 어떻게 도작(稻作)이 수도(水稻) 중심으로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도(陸稻)의 경우 국가기원의 수리가설(水利假說)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탄소동위원소분석(C3, C4, C5)을 통한 중국 신석기시대 만기(新石器時代 晩期) 양저문화(良渚文化)단계 인골분석이 있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C3식물군(콩, 보리, 벼, 온대성 초본류, 수목류, 시금치 등), C4식물군(기장, 조, 수수, 옥수수 등), C5(해양식물군)를 고려할 때 벼를 주식으로 했다면 인골에 C3탄소가 농축되고 벼가 아닌 조, 수수, 기장 등 밭작물을 주식으로 했다면 인골에 C4가 농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 분석을 통하여 중국 양저문화사람들이 실제 쌀을 주식(主食)으로 먹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의 주식이 된 것은 나중이고 처음에는 의례용이거나 사회적 권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위유력자들 중심으로 소비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Gwongu Kim

(Department of History, Keimyung University)

Many thanks for your impressive presentation on developing rice cultivation in China from research history to many astonishing and fascinating recent discoveries. I think for palaeo-botanic studies of rice cultivation ecological approaches will be more productive than nationalistic approaches emphasizing Chinese origin of the rice cultivation. On the basis of such ecological researches palaeo-ethno botanic studies and palaeo-cognitive symbolic botanic archaeology can be developed properly. I would like to ask some questions over the rice cultivation practices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Firstly, I wonder whether the wild rice existed or not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Let me know your evidences to support the presence of the wild rice if the wild rice might exist.

Secondly, I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explain what processes the rice cultivation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had been started and why it began in a specific way. When the emergence of rice cultivation should be researched, the diverse environmental regions in China should be divided and studied separately. If there was no wild rice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the rice cultivation must be diffused secondary one rather than originated one.

Thirdly, what is the major prevailing subsistence type of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just before the rice cultivation emerged? Please let me know what is the present picture of changing processes in the subsistence patterns from Epi-Palaeolithic to Mesolithic or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present archaeological evidences to support the present picture.

Fourthly, I wonder whether the broad-spectrum economy could be identified or not. Do you have any evidence of population pressure including population increase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or just before the rice cultivation emerged?

Fifthly, I wonder whether you have any evidence to suggest that there had been the dry field rice cultivation contrary to the paddy field rice cultivation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If the dry field rice cultivation had been practiced, what ration it might have taken in the diet of the Initial Neolithic people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The dry field rice cultivation might show another trajectories different from Wittfogel's irrigation model in the rise of civilization and state formation.

Sixthly,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could present some examples of Carbon-Isotopic Analysis(C3, C4, C5) applied to Later Neolithic Liangzhu culture(良渚文化) phase- human bones from burials. The analysis could give us some light implying whether the related people ate rice as a staple or not. In addition the analysis could provide other evidences to show that as a staple they might eat dry field crops such as millets rather than rice. I wonder whether there might be any possibility that rice might be consumed mainly as a ritual purpose or status food for the power elite group only during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Lower and Middle Yangtze river basins.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에 관한 토론문

김 권 구 (계명대학교)

미야자토 오사무 선생님의 발표는 한반도 한국식동검문화기 문화의 흐름을 잘 정리하고 일본열도의 확산과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이형동기가 일본열도로는 전파되지 않고 다뉴세문경도 마음대로 입수하기 어려워 야요이사회의 동모나 동과 등 청동기의 대형화(大形化)되고 동검은 대형화 및 이형화(異形化)되면서 장식성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 동검은 실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지만 한반도 남부에서는 실용성을 상실하면서 상징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며 동모나 석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보여 남한과 북한지역 사이의 무기에 대한 현저한 태도차이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동기문화에 대한 남북한 그리고 일본열도에서의 지역성을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이 한국식동검문화의 창출지역으로서 일본열도와 관련 있는 청동기문화로 보았습니다.

대체로 미야자토 오사무 선생님의 발표에 동의하며 발표내용이 아주 좋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 청동기의 출현은 북방초원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중원지역의 청동기문화의 자극 속에 요녕지역의 청동기문화로 형성되어 한반도로 들어와 무기류와 공구류 중심의 청동기문화에 의기가 추가되는 지역성을 가지면서 토착화되었다고 생각하며 호남지역의 청동기문화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둘째, 마제석검의 조형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한반도 석검과 동검 등 무기류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미야자토 선생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본열도에서는 과(戈) 문화가 야요이사회의 넓은 범위에 침투되었다고 하면서 모의전(模擬戰)과 같은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목과(木戈)도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광주 신창동에서는 세형동검을 모방한 듯한 목검이 출토된 바 있는데 이것도 모의전(模擬戰)과 같은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근에서 유력자의 무덤도 확인된 일본 후쿠오카의 청동기제작공방유구인 수구타카우다(須久タカウタ)과 같은 성격의 청동기생산센터가 호남지역의 경우 전북 신평혁신도시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청동기매납유적이 한반도에서도 소수이고 호남지역에서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 양상인데 비하여 시마네현 고진다니유적의 사례와 같이 일본열도에서는 야요이사람들의 청동기폐기방식이 대규모인 경우도 확인되는데 청동기의 제작과정에서의 지역성과 가치관과 더불어 폐기의 지역성도 중요한 연구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미야자토 선생의 의견부탁합니다.

여섯째 일본열도에서의 동탁의례권 및 동모의례권 등이 청동기의 분포양상을 중심으로 한 의례권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지역과 호서지역에는 나오고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팔주령과 쌍두령 등 청동방울류입니다. 물론 간두령은 대구 신천동에서도 나오지만 대체로 방울류는 호남지역과 호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것도 방울류 의례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바랍니다. 사실 일본열도의 청동기들은 장대화(長大化)된 보는 청동기라면 한반도 호남과 호서지역의 청동기는 듣는 청동기라고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는데 남북한의 청동무기에 대한 관념의 차이와 더불어 청동방울류는 호남지역에서 유력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의례수단으로 창출한 특색 있는 호남·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와 아산 남성리출토 검파형동기 등 청동의기가 파쇄되어 부장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본에서의 청동제 동탁이나 동과의 파쇄부장사례가 있으면 언급바라고 청동의기의 파쇄부장에 대한 미야자토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